

인공지능 로봇 큐아리와 함께하는 전시해설

서윤희, 경천사십층석탑 앞 로봇 큐아리 18:00~18:30

박물관에 처음 등장한 큐레이팅봇

박물관에 로봇이 돌아다니는 풍경은 5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문화정보원이 <2018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4대가 역사의 길에서 운행 중입니다. 국민 공모를 통해 큐아리란 이름도 갖게 되었습니다. 큐아리는 문화(Culture), 큐레이팅(Curating), 인공지능(AI)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문화(전시)해설 로봇이란 뜻입니다.

로봇 큐아리, 학습을 통해 똑똑해지다



그림 1. 조선실 앞 큐아리

큐아리가 박물관에서 4년을 지내는 동안 일상 대화와 감성을 표현하는 전시해설 로봇으로 거듭나며 똑똑해졌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의 성과입니다. 로봇은 처음에 각 구역별로 이동을 제한하였지만 활동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상설전시관 1층, 역사의 길 전체를 이용자와 동행하여 길 안내를 합니다. “하이 큐아리”라고 불러 대화를 시작합니다. “화장실 데려다줘”라고 말하면 가장 가까운 화장실까지 함께 갑니다.

챗봇 대화와 연계하여 편의시설, 문화상품점 등 주요시설과 구석기실부터 대한제국실까지 총 16개 상설전시실 입구까지 이용자와 동행하여 해당 전시실과 주요 전시품을 2~3분 설명합니다. 또한 역사의 길에 있는 전시품(경천사지십층석탑 등 3건) 안내는 큐아리의 질문에 이용자가 답을 찾으면서 흥미롭게 전시품의 정보를 알아가도록 참여형(인터랙션)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큐아리는 일반적인 챗봇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상황에 맞는 깊이 있는 내용과 재치 있는 답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답변에 따라 표정에도 변화를 주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림 2. 길 안내

특별전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3)

- 『외규장각 형지안』으로 보는 외규장각의 운영 -

김진실,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외규장각外奎章閣은 조선 왕실의 귀한 물건들이 가득 차 있던 보물창고였습니다. 한양의 궁궐 창덕궁에 있던 규장각奎章閣에 비견될 만큼 왕실 구성원의 각종 책보와 어제어필, 왕실에서 펴낸 각종 서적들이 봉안되어 있었습니다. 규장각의 각신들이 봉심과 포쇄를 위해 1년에 한번 씩 외규장각으로 왔습니다.

병인양요(1866년, 고종 3) 때 프랑스군의 약탈과 방화로 인하여 외규장각은 건립된 지 8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규장각의 각종 봉안 물품을 관리하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작성되었던 『외규장각 형지안』이 남아 있어 당시 외규장각의 내부 구조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각종 책보와 함께 봉안되어 있었던, 이번 특별전의 주인공인 의궤들은 북쪽 벽과 서쪽 벽에 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형지안에는 이 의궤들의 목록이 언제, 어떤 행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래 비치되어 있던 의궤 약 660여 건 중에 약탈당하여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는 297건이었습니다. 약탈 직전 외규장각에는 어떤 물품들이 있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							
서	북 좌탁		별1가	별2가	별3가	북 우탁	동	
	2탁	소탁	정간 구역			소탁		2탁
			정간 좌탁 큰 궤櫃	정간 봉안장 (3층)	정간 우탁 궤 3개			
	1탁							1탁
	남, 출입문							

그림 1. 1857년(철종 8) 형지안으로 추정한 외규장각의 내부 구조

제700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11월 16일)

고구려의 벽화무덤

김진경, 디지털실감영상관 3관 19:00~19:30

우리는 고구려실에 전시된 궁궐터, 절터, 무덤, 군사 유적 등에서 출토된 다양한 소장품을 통해 고구려 문화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실 양쪽으로는 고구려인들의 여러 삶의 모습과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강서대묘 벽화 모사도와 디지털 실감 영상 ‘돌 벽 위에서 만난 고구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실감 영상관에 들어서면 당신 앞에서 고구려 무덤이 활짝 열립니다.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면 차가운 돌의 표면에서 고구려인들이 살아나와 생생한 모습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안악 3호 무덤’과 ‘덕흥리 무덤’은 생활 풍속 장면으로 장식된 고구려 초기 벽화무덤을 대표합니다. 무덤에 그려진 귀족의 대저택과 행렬도는 죽어서도 살아 있을 때와 동일한 삶을 유지하고자 했던 당시 사람들의 바람을 보여줍니다. 후기 벽화무덤인 ‘강서대묘’에 그려진 사신四神은 무덤 주인의 내세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주기를 바라는 강한 소망일 것입니다.

고구려 벽화무덤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지안[集安]과 환런[桓仁]지역에서 31기, 평양平壤과 안악安岳 지역에서 76기 등 지금까지 107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닿을 수 없는 너무 먼 곳에 있습니다. 실감 영상은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고구려 벽화무덤을 우리 가까이로 옮겨왔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덤의 주인공이 살고 있었던 장면일까요? 세상을 떠난 주인공이 새롭게 만나고 있는 다른 세상일까요?? 약 1,500년 전 고구려인들의 숨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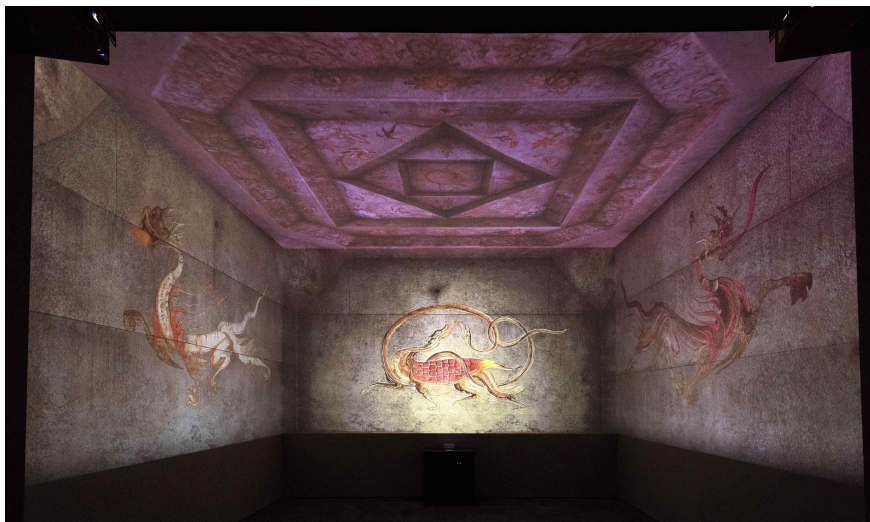


그림1. 디지털 실감 영상 ‘돌 벽 위에서 만난 고구려’ 속 ‘강서대묘’

제700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11월 16일)

특별전<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4)

- 합스부르크 600년, 수집의 역사를 보다 -

양승미, 기획전시실 19:00~19:30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는 한국-오스트리아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오스트리아 빈미술사박물관 특별전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합스부르크 왕가가 15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수집한 소장품 총 96점으로 구성되었으며, 회화, 공예, 갑옷, 태피스트리, 복식 등 다양한 재질의 수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로 역사적 맥락으로만 접해왔던 합스부르크 왕가를 수집의 역사라는 틀 안에서 조명함으로써, 유럽의 패권을 장악했던 가문이면서도 예술의 후원가이자 수집가로서 했던 새로운 역할로 새롭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루돌프 1세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 선출된 1273년부터 1차 세계대전 뒤 카를 1세가 왕정을 끝낸 1918년까지 약 600년간 유럽 역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16세기 프라하와 티롤 지역, 17세기 스페인과 플랑드르 지역 등 다양한 거점을 중심으로 수집활동을 했던 합스부르크 왕가는 수집품을 꾸준히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으로 모았습니다. 18세기에는 최초로 수집품을 궁전에 전시해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했고, 19세기에는 집대성한 빈미술사박물관을 건축하였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가 600년간 수집한 예술품은 빈미술사박물관에 남아 열정적인 예술 수집가이자 후원자였던 그들의 면모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술이 곧 힘이자 지식이고 권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순탄하지 않은 역사 속에서도 수집을 이어왔고 집대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매혹의 걸작들을 감상하며,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켜낸 예술의 힘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림1. 흰 옷을 입은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



그림2. 주피터와 머큐리를 대접하는 필레몬과 바우키스



그림3. 페르디난트 2세 대공의 독수리 장식 갑옷



그림4. 십자가 모양 해시게